

대한민국 1위 브랜드 만든 삼다수 모델들

청정 화산암반수 이미지·사회 트렌드 활용 광고 선배 2006년부터 전세대 아우른 모델로 품질 등 홍보 큰 효과 올해 모델 김혜수... “물도 꼼꼼히 따져 마시는 문화로”

제주삼다수가 새로운 광고 캠페인 모델로 배우 김혜수를 발탁해 청정과 품질, 건강을 테마로 한 모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1998년 3월 출시된 삼다수는 청정 화산암반수와 사회 트렌드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21년간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도, 브랜드 파워 모두 1위를 고수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 ‘물 맛’ 강조 캠페인-출시 후 2005년까지 가족과 자연을 주제로 한 광고를 진행하던 제주삼다수는 2006년 배우 유호정-이재룡 부부와 함께 한 TV광고로 연예인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2008년에는 배우 이요원의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와 제주의 아름다운 유채꽃 밭, 한라산의 눈꽃이 어우러진 이미지 중심의 TV 광고를 선보였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광고는 어

린리와 일반인 모델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화산암반수로 걸러진 자연의 선물이라는 포인트에 집중했다.

▶ 전 세대 공감 모델 활용=2016년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수정하고,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수 태연과 규현을 더블캐스팅해 프로젝트 밴드 ‘고맙삼다’를 결성했다. ‘제주도의 푸른 밤’을 재해석한 음원을 발매하고 이를 활용해 제주 여행을 주제로 한 TV 광고를 진행했다. 음원은 2016년 4월 출시된 이후 국내 5개 음원사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배우 조정석을 기용해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이라는 콘셉트로 제주삼다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했다.

▶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반영=2018년에는 배우 겸 가수 이승기를 새 홍보모델로 기용해 건강을 우선



제주삼다수는 새 광고 캠페인 모델로 배우 김혜수를 발탁해 다양한 세대에 물에 통한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주개발공사

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음용수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써 삼다수의 특별함을 알렸다. 올해 11년만에 단독 여성 모델로 기용된 김혜수는 ‘건강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 ‘물 만큼은 제주삼다수로 산다’는 메시지로 청정한 제주삼다수의 품질과 삼다수 앱을 통한 간편 주문을 소개했다. 김혜수의 건강한 에너지가 다양한 세대에 물에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실제 제주의 지하수는 국내의 대학 연구팀에 의해 비만 개선 효과는 물론 장기 음용시 당뇨병 개선효과,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모델 김혜수가 물 하나도 꼼꼼히 따지고 음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시 공유재산 실태 조사 무단점유 등 확인 행정조치 기지개 켜는 뱃길 관광... 이용객 늘었다

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류 상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전체 7만 2792건·6750만1000㎡의 공유재산(토지 7만1597필지·6703만9000㎡, 건물 1195동·46만2000㎡)으로 70여명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법된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929건의 무단점유 중 161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 김현석기자

올 1/4분기 제주항 여객선 전년 같은 기간 比 12% ↑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제주~인천 항로 7월 재개
여객선 이용 수요 더 늘듯

제주 뱃길 여객수송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세월호 이후 중단된 제주~인천 항로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뱃길관광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제주항의 여객선 카페리 1/4분기 여객수송 실적이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을 이용한 여객은 전년도 1/4분기 28만76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31만5380명으로 증가했다. 모슬포항에서 가파도와 마라도를 이용한 여객도 전년도 1/4분기 23만825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만7021명으로 2만 8765명이 증가했다.

뱃길관광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선령이 만료돼 대체 선

박을 건조하는 등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투입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사의 홍보와 제주도 차원의 여객편의서비스 제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제주~인천 항로가 오는 7월 개설했던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모슬포→가파·마라도 항로 활성화에 5월 5일부터 모슬포 여객선 대합실 증·개축 등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표성준기자

해녀문화 상품 개발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이며, 출품작 접수기간

은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신청 및 접수는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동봉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of.jeu.kr) 공

지사항에서 공모전 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시상은 최우수상 500만원(1점), 우수상 300만원(2점), 장려상 100만원(5점) 등 총 상금 2400만원 규모로 이뤄진다.

▶ 고대리기자

“일회용품 줄여요”... 시민과 ‘맞손’

서귀포시, 민관 합동 캠페인 안덕면, 지역내 카페와 연계 텀블러 지참시 할인 안내도

서귀포시가 지역내 새마을부녀회와 합동으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정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25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지역내 대형마트 3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배포했다.

현금영 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덕면(면장 이상현)과 안덕면새마을부녀회(회장 강인숙)는 가정과 가게에서 발생하는 소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컵)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덕면은 지역내 커피숍에 방문 시 개인 휴대용 머그컵 및 텀블러를 지참하면 계산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카페를 소개해 주는 지도를 제작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현 안덕면장은 “자생단체에서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지난 24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서귀포시가 주최한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 ‘서귀포의 문화를 말한다’가 진행됐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시민과 함께 그리는 문화도시 서귀포

시, 시민라운드테이블 운영 문화도시 사업내용 등 공유

올 연말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중인 서귀포시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문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24일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 ‘서귀포의 문화를 말한다’를 문화예술단체 회원과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 105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너른마당에서 3시간 동안 진행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박사의 ‘문화도시 이해하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추진해온 문화

도시 사업 내용 설명과 안영소사이 어티 안영노 대표의 라운드테이블 진행과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시민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서귀포의 모습은?”을 시작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노지란?” 등을 주제로 시민들이 꿈꾸는 서귀포시의 미래와 노지 문화에 대한 집중 토론을 펼쳤다. 한 시민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어설프게 이해했던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과 방향성을 깊이있게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해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문미숙기자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숙개비 ◎ 꽃이 봉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습)	내피를 양생막 또는 양생이라 하는데 양생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균(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판이엔 을 2번 엽면시비

-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 판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완효적 질소비 효과	석회효과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선충 밀도의 저하	페르카®	잡초의 경감
토양소독 효과		가축의 기생충 방제
유기물의 부속 촉진	토양의 비옥화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제품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련, 엽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